

재외동포의



12

2015



특집 _ 세계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의 장 '한인차세대대회' 성료
25개국 88명 차세대 리더 참가... 서울·제주서 '코스모폴리탄' 역할 모색



본격적인 금속화폐 시대 연 상평통보 생산물의 상품화 촉진



한국조폐공사가 있던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조성된 화폐조각공원

조선은 건국 초에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고려시대에 유통됐던 은화의 통용을 금지하고 대신 지폐인 저화, 동전인 조선통보·십전통보 등을 발행해 유통시키곤 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쌀이나 면포 같은 실질 가치가 있는 물품을 화폐로 대용했다. 그만큼 상품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고 화폐 정책도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가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상품 유통이 발전했다. 원래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농민의 특산물을 받아 조달했는데, 대동법을 도입해 대동미라는 미곡을 바치게 했다. 이 미곡을 공인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그 결과 상품 유통이 원활해져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금속화폐의 유통이 필요하게 됐다. 왜냐하면, 미곡도 이동하기에는 무거워서 그보다 가벼운 금속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평통보는 숙종 4년(1678)에 중앙의 7개



조선시대의 화폐 상평통보의 앞면

기관과 감영 및 군영 등에서 주조하기 시작해 17세기 말경에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른다. 상평통보는 근대 화폐가 발행된 고종 때까지 통용된 대표적인 금속화폐이다.

상평통보의 '상평'은 '상시평준'의 줄인 말이다. 이 말은 유통 가치에 등가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노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화폐의 외형은 납작하고 둥글며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다. 앞면에는 상평통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주조한 관청의 줄여 쓴 명칭, 숫자나 부호 등이 표시돼 있다. **참**



상평통보의 뒷면



04



10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201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려고 방한한 25개국 90명의 차세대 리더들은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제주 등에서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한인'이란 슬로건 아래 포럼과 네트워킹을 활발히 전개했다.

- 02 한국의 얼 본격적인 금속화폐 시대 연 상평통보
 생산물의 상품화 촉진
- 04 특집 세계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의 장 '한인차세대대회' 성료
 25개국 88명 차세대 리더 참가...
 서울·제주서 '코스모폴리탄' 역할 모색
- 06 동포 소식 한국계 마크 김 미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4선 성공 외
- 09 동포 캘린더 타이베이한국학교 교사 재건축 외
- 10 기획 유학생회 중심으로 시작된 스웨덴 한인사회
 차세대 위한 사업 등 조직 확대
- 12 화제 재외동포 모국 유학생 진주·통영서 역사문화 체험
 "선조의 호국정신에 감동했죠"
- 14 글로벌 코리아 한인 첫 8선 정치인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
 한국인으로 현지서 첫 개인전 연 크로아티아 동포 백지숙
 고려인 첫 정착촌 바슈토크의 김 에두아르드 총장
- 16 지구촌 통신원 아부다비서 'UAE 진출 한국 청년의 밤' 행사
 현지 생활정보와 소중한 경험 나눠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와 금융 거래
 실명확인 후 자유거래, 단 핫머니는 규제
- 18 한민족 공감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 19 OKF 뉴스 재단 초청으로 인천재능대서 고려인 후손 직업교육 외
- 20 동포의 창 미국 생활의 즐거움과 애환 21가지
 임해경 _ 미국 _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 22 동포문학 바다
 전승호 _ 노르웨이 _ 2015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충남 홍성 남당항의 새조개
 겨울철 최고의 조개 맛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의 장 ‘한인차세대대회’ 성료 25개국 88명 차세대 리더 참가... 서울·제주서 ‘코스모폴리탄’ 역할 모색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제18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 88명이 모국을 방문해 서울과 제주 등에서 포럼과 네트워킹을 활발히 벌인 ‘2015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한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차세대대회는 11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법률·과학기술·금융·정치·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25개국의 한인 차세대가 참석했다.

주요 참가자로는 캐나다 검사로 중국 내 탈북자 신분에 대한 법률 연구에 앞장서는 김민선 씨, 미국 뉴저지공과대 정보시스템학과의 마이클 리 교수, 우즈베키스탄 보건국 의사사회부의 김 나탈리나 국장, 영국 디자인협회가 올해의 차세대 디자인 스타로 뽑은 이창희 디자이너, 노르웨이에서 블룸버그 통신사 기자로 활약하는 조창훈 씨 등이다.

조규형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미동포 출신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성 김 씨는 재임 기간에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25개국에서 온 한인 차세대 리더와 서초구청 어머니 회원 등이 11월 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김장체험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참석자들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은 모두 각자의 거주국에서 제2, 제3의 성 김 대사가 될 수 있는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대회 기간 열리는 각종 포럼에 참석하고 참가자끼리 교류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굳건히 하고 앞으로 모국과 거주국의 상생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창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능통한 차세대 여러분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라며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모국 연수 등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에 나섰고, 만찬에서는 러시아에서 참가한 고려인 가수 뉴탈리아 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세계시민 역할 논의… 김장 봉사에도 참여

둘째 날인 3일에는 참가자 6명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아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세대 스토리’ 세션과 국내 리더그룹과 함께 양성평등·환경·봉사·국제정치 등 4개 주제별 토론을 펼치는 ‘차세대 세계 시민포럼 코스모폴리탄(Kosmopolitan)’이 열렸다.

재단은 176개국 지구촌 곳곳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가는 차세대가 세계시민이면서 동시에 한민족의 구성원인 것에 공감하고 공통의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포럼을 마련했다.

3시간이 넘게 이어진 토론에서는 차세대의 정체성,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기금 마련 방법에 관한 사례 소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차세대들은 개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한인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면서도 주류사회 기여를 통해 한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

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4일 오전에 참가자들은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구청 어머니 회원 200여 명과 함께 김치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다.

노르웨이 국제변호사인 강병일 씨는 “김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만큼 널리 알려진 음식이지만 직접 담가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함께 땀흘려 남을 돕는 데 동참했다는 뿌듯함과 즉석에서 바로 수육과 함께 먹어본 김치 맛의 감동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뿌듯해했다.

이어 진행된 국무총리 간담회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국내 진출 유도 방안, 차세대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해외 입양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등 차세대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크게 발전했다”고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5일부터 제주도로 이동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문화유산 탐방에 나섰다. 제주도 내 가장 큰 무인도인 차귀도에서 배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절경이 빼어나기로 소문난 올레길 7코스를 완주하며 모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과 가슴에 가득 담았다.

대회를 마치고 조규형 이사장은 “이번에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이 거주국에서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자랑스러운 한인의 후예로서 자아발전은 물론 한민족 공동체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차세대에게 당부했다. **▶**

한국계 마크 김 미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4선 성공

미국 버지니아 주의 첫 한국계 주 하원의원인 마크 김(49) 의원이 4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의 3선인 김 의원은 11월 3일 한인 밀집지대인 주 하원 제35지구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의원은 “한인과 이민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펼쳐왔다”며 “한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4선까지 결코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나를 모델로 젊은 한인들이 야망을 크게 품고 미국 정치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방의원직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하원의원인 한국계 마크 김 (49) 의원이 4선 고지에 올랐다.

김 의원은 4살 때 군복인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으로 건너갔다가 14살 때 미국으로 재이주했다. UC 어바인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UC 헤이스팅스의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그는 1992년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한인의 정치력 부재를 절감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에 입당해 정무직으로 연방방송위원회와 연방중소기업청 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당 중진 디 더빈 상원의원의 수석보좌관도 지냈다. 그는 2009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래로 매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65%대 35%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고 상대편인 공화당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이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재일 음악가 양방언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고은과 협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양방언(55)이 11월 1일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한국 대표 시인인 고은과 협연했다. 고은은 이때를 맞아 유네스코에 헌정하는 평화의 시 ‘그러나 의 노래’를 썼다. 고은이 먼저 시를 낭독해 녹음한 음성애 맞춰 양방언은 연주곡을 만들었다. 음악은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프랑스 문학계 인사 등 5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울려 퍼졌다.

“시 낭송에 맞춰 음악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역시 어려움은 있었죠. 하지만 한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 현악주자들이 한자리에서 연주한다는 게 관객에게도 와 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엇이든 처음 시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빛이 보



재일 음악가 양방언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시와 연주가 함께하는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면 계속하고 싶잖아요. 이런 면에서 저도 새로운 길을 다시 인식했어요.”

그 감동을 안고 한국에 온 양방언은 이제 전국 투어 ‘에벌루션(Evolution) 2015’를 마무리하느라 바쁘다. 10월 14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북 정읍과 충남 서산을 돌았고 앞으로 경기도 하남·수원, 경남 김해, 부산과 울산 공연이 남았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인 그가 강조한 투어의 주제는 ‘경계 없음’을 의미하는 ‘노바운더리’(No Boundary)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양방언은 기존 노래를 수차례 다르게 편곡해 연주했다. 또 투어 중간에 완성한 신곡이 있어 후반부 콘서트 관객은 따끈한 새 노래를 감상

할 수 있다. 그는 “음악이 한곳에 멈추지 않고 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드옥타 유럽경제인대회 파리지 비즈니스 교류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했다. 전 세계 70개국 137개 지회를 둔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철)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파리 풀만 호텔에서 파리지회(지회장 유성은) 주관으로 '2015 월드옥타 유럽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유럽 각국 23개 월드옥타 지회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지회장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대륙별 월드옥타 지역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지회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 월드옥타 파리지회 차세대 발대식도 열렸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유럽경제인대회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듣고 있다.

유성은 월드옥타 파리지회장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훌륭한 거상이 많이 배출돼 유럽 동포사회가 지금보다 커지는데 견인차 구실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쉴민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무역인의 열정과 땀방울이야말로 한국과 유럽의 활발한 경제 교류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일등 공신”이라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무리엘 페니코 프랑스 투자청장도 참석해 한국 경제인들의 프랑스 투자를 요청했다. 페니코 투자청장은 “프랑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으로 통하는 시장일 뿐 아니라 공항,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고 인적 자원도 뛰어나다”면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프랑스에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해외 세 번째 ‘평화의 소녀상’ 제막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11월 18일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이기석 한인회장,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 박경자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장, 랜디 페타피스 온타리오 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 세워지기는 미국 LA글렌데일시 시립중앙도서관, 미국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다.

화성시는 건립추진위, 토론토시 한인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화성시민의 성금을 모아 토론토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화성시가 지난해 8월 동탄 센트럴파크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작품으로, 건립추진위가 시민 모금운동으로 마련한 8천여만 원으로 만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이 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들었다.

토론토시는 3·1운동 당시 화성시 제암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제 학살 사건의 참상과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한국명 석호필)가 생활하던 곳이기도 하다. 화성시가 올해 3·1절을 맞아 토론토시에서 스코필드 박사 동상 제막식을 연 것이 토론토 소녀상 건립 추진의 계기가 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자매도시인 캐나다 버나비시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버나비시 거주 일본인들의 거센 반대로 건립 사업이 중단됐다. 스코필드 박사 동상 제막식 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토론토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화성시를 도운 결과, 토론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성사됐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왕과 나' 한국계 주연배우 큰 인기

브로드웨이 뮤지컬 '왕과 나' (The King and I)에서 주연을 맡은 한국계 배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한인 2세 훈 리(42)는 지난 7월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링컨 센터에서 공연 중인 '왕과 나'에서 태국의 옛 이름인 시암(Siam)의 국왕 역할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이 뮤지컬은 시암 왕실의 왕자들을 위해 초청된 영국인 가정교사와 시암 국왕이 문화 및 관습의 차이를 극복해 가면서 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전 뮤지컬에서는 1985년에 숨진 올 브리너가 시암 국왕으로 등장해 브로드웨이를 달궜다.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왕과 나'에서 시암(태국) 국왕 역할을 맡은 한국계 2세 훈 리가 텀팁 역의 애슐리 박(오른쪽), 티앙 역의 루디 안 마일스(왼쪽)와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 시작한 '왕과 나'는 '신데렐라'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을 제작했던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Rogers & Hammerstein)이 만들었으며, 훈 리는 올 브리너가 맡았던 시암의 국왕 역할을 하고 있다. 머리를 삭발하고 태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그는 위엄이 있는 어조와 강한 영국식 악센트로 '완고한' 왕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중간 중간에 익살스러운 대사와 연기로 관객을 웃음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다.

정보기술(IT) 관련 일을 했던 부모님을 따라 이민한 그는 "다른 배우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노력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면서 "이런 노력이 나를 더 좋은 배우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고려인 이주사 알리는 청소년 창작극 공연

1936년 러시아 연해주 어느 고려인 마을의 청년인 재형과 순애는 이웃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 그러나 달콤한 신혼의 단꿈도 잠시. 이들을 기다리는 건 1년 뒤 중앙아시아 벌판에 내팽개쳐지는 강제 이주의 수난이었다. 소련군에 끌려간 재형의 생사도 모른 채 이주 명령으로 기차에 오르게 되는 순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의 이야기는 국내 청소년들이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연극으로 꾸민 줄거리의 일부다. '당신이 꽃이 되어 곱게 피면'이란 제목으로 11월 28~2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신관 4층의 '하하허허홀' 무대에 올러진 이 연극은 '길 위의 여행학교'로 불리는 대안학교 '로드 스피라'의 학생들이 희곡을 쓰고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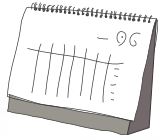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중앙아시아의 '김병화 농장' 내부.

출과 출연까지 직접 맡은 작품이다.

로드 스피라의 학생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한 달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고향 마을 등을 방문했다. 이후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를 따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해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우수투베와 고려

인 노동 영웅 김병화의 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 등 고려인 단체를 찾아 강제 이주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들은 공연 수익금 전액을 고려인 단체를 후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장**



타이베이한국학교 교사 재건축

대만 타이베이(臺北)시 외곽 완화(萬華)구 청니안(靑年)로에 있는 타이베이한국학교(교장 박경진)는 내년 가을 학기 완공을 목표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다. 현재 5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한국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다른 학교 교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하는 터라 한류의 영향을 받고 찾아오는 현지인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 한인 2세 보디빌더 챔피언 프로 전향

미국 콜로라도 주 보디빌더 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른 한인 2세 저스틴 팔라카(20) 씨가 프로로 전향한다. 11월 14일 열린 '2015 NPC 로키 마운틴 챔피언십'에서 1등을 차지한 그는 1980년대 투원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선화(56·여) 씨의 외아들로 5년 전 어머니가 말기 유방암으로 투병하자 함께 보디빌딩을 시작했다.



싱가포르한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 한인회(회장 노중현)는 12월 10일 샹그릴라호텔에서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기로 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인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위해 KBS '불후의 명곡'을 통해 인기몰이 중인 옴므(이창민·이현), MC 당동, 백미현 씨를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과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 상하이서 시작

중국 상하이 지역 한국 동포 단체인 상해한국상회(회장 정희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재외동포 720만 명 가운데 23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최소 100만 명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치러지는 총선 재외 투표에 앞서 유권자 등록 접수는 12월 15일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브라질 '비바 코레িয়া' 리우올림픽 앞두고 행사 준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브라질 양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브라질 한류 사랑 모임인 '비바 코레িয়া'(Viva Coreia) 회원들이 내년 8월 개막 때까지 각종 한류 행사와 스포츠 이벤트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모인 '비바 코레িয়া' 회원들은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11월 8일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태권도와 양궁, 농구 등 3개 종목의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 추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범국민 민간 기구인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를 11월 10일 구성하고 내년 광복절까지 추모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적인 시민 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후보지 몇 곳을 놓고 조사해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대한제국이 망한 자리이자 식민 통치자들의 본거지·심장부였던 서울 남산 통감관저 터에 추모 공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유학생회 중심으로 시작된 스웨덴 한인사회 차세대 위한 사업 등 조직 확대



북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한국전쟁 당시 일찍이 1개 야전병원을 지원해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중앙의료원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국립의료원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우리나라에 17만 달러를 원조하기도 했다.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59년 3월로 현재 대사급의 외교관을 상호 설치하고 있다. 현 구스타프 국왕은 2012년 국빈 방문한 것을 비롯해 6차례나 우리나라를 찾았다.

한국인이 스웨덴에 처음 이주하기 시작한 것도 한국전쟁이 인연이 됐다. 스웨덴은 야전병원부대와 병원선을 함께 파견했는데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한편 유학생으로 입국했다가 과정을 마친 다음 현지에 취업하면서 정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스웨덴으로 직장을 옮긴 광부가 5명, 간호사가 약 40명에 이른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전화회사 엘엠 에릭슨(LM Ericson)이 한국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기술을 제휴하고 1987년 120명의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했다. 이들 스웨덴 기술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이 스웨덴에 입국했는데 이들이 약 40명에 달한다. 국제결혼한 여성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층이었다.

2천789명에 이르는 스웨덴 거주 한인의 직업 분포를 보면 대학교수, 의사, 사업가, 회사원 등 다양하다. 스웨덴 회사에 취업한 사람도 여럿이 있고 대사관과 KOTRA에 근무하는 직원, 한국 기업의 지상사에 근무하는 주재원 등도 있다.

스웨덴한인회는 1963년 유학생회가 주관해 야유회 및 송년회 행사를 열면서 시작했다. 1965년 회보인 '우리 소식'을 창간했고 1970년 회칙을 제정하면서 '재서전한인회'로 정식 출범했다. 경로잔치와 유럽한인체육대회 개최, 한인회관 기금 모금 등을 전개해온 한인회는 예테보리에 지회를 두면서 중앙회로 승격됐다.

한인회가 매년 개최하는 한인 합동 야유회에는 올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바비큐 요리와 각종 게임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매년 열리는 한인 체육대회도 작년의

탁구에 이어, 올해는 배드민턴을 주종목으로 치러졌다. 참석자는 50명에 달했다.

올 들어 차세대 청년 모임 다수 개최

한인회는 최근 들어 차세대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연초에 19~40세의 차세대 한인 약 60명이 레스토랑 남강에서 청년 회원 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모임을 열었으며 9월 26일에는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10월 28일 차세대 한인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송년회 홍보를 위한 행사에는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톡홀름의 축구 클럽 유르고덴스에서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 문선민, 유수용 선수가 초대되기도 했다.

한인회 못지않게 스웨덴 한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학교이다. 1985년에 한글학교로 문을 연 한국학교는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11월 14일 재스웨덴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학교의 날 행사에는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동포가 함께해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국학교는 유아반, 유치동반, 초등반, 성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반, 중·고급반 등 10여 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195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 입양아 중 유럽 지역 입양아 총수는 대략 7만여 명이다. 스웨덴에는 한국의 입양아가 많아 입양아 부모들이 1986년 한국입양아협회(AKF)를 결성했다. 이들 입양아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한국인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한국에 관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한글학교에서 부모가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1982년 유학차 스웨덴으로 가 정착, (주)남강·이라디아 코레아를 운영하는 강진중(58) 씨는 80년대 후반 유럽 한인 및 입양 청년 체육회를 세워 지금까지도 스웨덴 입양인의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다. 스웨덴 한인입양인 후원회도 설립한 그는 “유럽에 사는 한인 입양인 7만여 명 중 스웨덴에만 1만 명이 넘는 한인 입양인이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테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입양 한인인 다니엘 리(한국명 이남민·38) 씨는 수련생이 700명에 이르는 스톡홀름의 캠프스포츠헤스트(Kampsporthuset)의 관장이다. 이 관장은 생후 4개월 때 스웨덴 양부모에게 입양돼 스톡홀름 읍살라라데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말피에는 한인 입양인으로서 유명한 요리사가 된 제니 발덴 씨가 올해 문을 연 '나무'라는 한국 식당이 있다. **장**



1. 2006년 6월 2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노르웨이의 평가전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올레볼 스타디움에서 스웨덴 동포들이 응원하고 있다.
2. 2012년 2월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동아시아박물관 한국실 개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3. 2012년 6월 1일 국민 방한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일행이 여수 엑스포 스웨덴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4. 2010년 9월 28일 열린 9·28 서울 수복 기념행사에 참석한 스웨덴 군악대
5. 2014년 10월 1일 6·25전쟁 참전국인 스웨덴을 방문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스웨덴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6. 주스웨덴 한국 대사관은 2010년 6월 14일 스톡홀름 유엔기념탑 앞에서 스웨덴 참전 용사들과 함께 6·25전쟁 발발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7. 2000년 9월 22일 스웨덴 참전용사 20여 명이 스웨덴 의료지원단이 주둔했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스웨덴 참전 기념비를 방문, 헌화했다.

재외동포 모국 유학생 진주·통영서 역사문화 체험 “선조의 호국정신에 감동했죠”



1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모국에서 유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들이 경상남도 진주·거제·통영 일대에서 역사·문화 체험을 벌였다.

37개국에서 온 141명의 동포 대학생·대학원생은 11월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 체험'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는 현재 학사 및 석·박사과정에 다니고 있거나 내년 입학 예정으로 어학연수 중인 학생들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이종미 차세대사업부장은 “우수한 동포 학생을 민족 정체성과 세계화된 지식과 사고를 갖

춘 인적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초청 장학사업의 목적”이라며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국의 역사와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동시에 유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임진왜란의 전적지였던 진주성과 임진왜란의 유물을 전시한 국립진주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저녁에는 ‘대륙별 유학생 네트워크의 밤’에 참여해 모국 생활과 학업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번 역사문화 체험 주제는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 정신’”이라며 “임진

1. 37개국에서 온 141명의 동포 대학생·대학원생은 11월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상남도 진주·거제·통영 일대에서 유적지 탐방과 지역 문화 체험을 펼쳤다.
2. 참가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수군 사령부였던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의 제승당을 견학했다.
3. 유학생들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거제조선해양문화관에서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배웠다.



왜란 당시 3도(경상·전라·충청) 수군의 본영이 있던 한산도 제승당, 이순신 공원, 진주성 등 유적지를 둘러 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몸 바쳐 싸웠던 분들의 우국충정을 되새겨보는 일정으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일정을 주관한 역사기행 전문 여행사인 '여행이야기'의 역사해설사는 진주성과 축석루를 안내하며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4천여 군사로 3만의 왜군을 물리친 진주성대첩과 적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의로운 기생 논개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학생들은 진주성 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과 당시의 유물을 관

람하면서 선조의 호국정신과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고려대 국제학부 4학년에서 재학 중인 황지영(22·미국) 씨는 "지난해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전투를 소개한 영화 '명량'을 보고 깊이 감동했는데 이번엔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왜적을 물리쳤는지 제대로 배웠다"며 "선조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금수강산이란 생각에 우리 국토가 더 정겹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독일 출신으로 한동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정지은(19) 씨는 "충무공이 관직에 있던 23년간 간신배의 모략으로 3번 파직되고 1번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번 백의종군하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백성을 지키기 위한 충정으로 목숨까지 바쳤던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들으니 왜 '성웅'으로 불리는지 알겠다"면서 "새삼 모국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둘째 날에는 통영 이순신공원, 한산도 제승당, 거제조선해양문화관, 거제 포로수용소 등을 답사하고 저녁에는 어학연수, 학사, 석·박사로 나뉜 '과정별 네트워크의 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유학 생활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모아 동포재단에 전달했다.

마지막 날에는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고자 세운 통영 세병관을 견학한 뒤 도시문화 체험 행사로 중앙시장과 벽화로 유명한 동피랑마을 등을 탐방했다.

역사문화 체험을 마친 이들은 유학의 동기에 대해 묻자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선조의 고향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뿌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며 "전 세계에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장학생이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육성 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학사업 가운데서도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우수 동포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은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 석·박사과정 초청 장학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학사과정도 지원해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한인 첫 8선 정치인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

한국인 거의 없는 지역구서 연거푸 당선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의 조성준(레이먼드 조·79) 시의원은 ‘정치인인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을 꼽아 달라’는 첫 질문에 ‘희생’, ‘사랑’, ‘비전’이라고 답했다. 토론토 42선거구(스카버러-루즈리버)에 출마해 8선의 기록을 쌓은 그는 유권자 8만 명 중 한인은 100명도 안 되는 지역에서 연거푸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토론토 시의회는 물론 전 세계 한인 이민사에서 유일한 8선 한국인이다.

1961년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한 그는 캐나다 이민관으로부터 ‘캐나다에 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이민을 권유받아 태평양을 건넜다. 캐나다 공식 이민이 시작하고 정확히 100번째 이민 신청을 해 1967년 3월 단돈 100달러를 들고 밴쿠버에 도착했다.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낮에는 에드먼턴에 있는 석면 광산에서, 밤에는 술집에서, 새벽에는 바에서 악착

같이 등록금을 벌었다. 밴쿠버 도착 9개월 만에 토론토로 보금자리를 옮긴 그는 토론토대 대학원에 원서를 내고 공부를 시작했다.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논문 제출만을 남겨놓았을 때 고국에서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책을 접고,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는 재일동포 지문 날인 반대운동을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펼치는 등 인권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 한인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떠올랐고, 정치계에 몸을 담그는 계기가 됐다.

1991년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한 이래 내리 8선을 기록하며 24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6년 전 ‘글로벌 유스 리더스’를 조직해 고교생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뛰고 있다. 하루 평균 10~12시간씩 일하는 ‘일벌레’로 불리는 그는 최근 토론토동물원 이사장을 겸직으로 맡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현지서 첫 개인전 연 크로아티아 동포 **백지숙**

동양적인 화풍으로 주목받는 화가

크로아티아 동포 백지숙(49) 화백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현지에서 동양적인 화풍으로 주목받는 그는 11월 3일부터 20일 동안 수도 자그레브의 미마라박물관에서 ‘모든 자연의 얼굴’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지은 미마라박물관은 렘브란트·고흐 등 유명 작가의 작품 3천7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청양 출신으로, 1989년 숙명여대 회화과를 졸업한 그는 지인의 소개로 크로아티아 남편 안토 토마스와의 만나 1996년 결혼했다. 남편의 고국에 정착한 그는 자그레브 미술대학에서 회화과 대학원을 수료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크릴과 복합재료로 그린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다. 대부분이 130×



180cm의 비교적 큰 사이즈로, 숲과 물을 통해 자연이 지닌 여러 가지 얼굴을 계절별로 표현했다. 전시회 개막식은 서형원 주크로아티아 한국 대사를 비롯해 독일·헝가리·그리스 등의 외교사절, 크로아티아 국영전자통신 HAKOM의 드라젠 루치크 회장, 연극·영화·미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첫 번째로 정착한 한국인인 그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인근 국가에서 전시회를 연 뒤 내년에는 한국 관람객과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백 화백은 “이번 전시에는 많은 신문·방송이 관심을 보였으며, 이곳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적 정서가 담긴 화풍을 소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로아티아 미술평론가들은 그를 ‘한국의 정서와 동양미술 전통, 그리고 서양미술 전통을 조화시킨 크로아티아에서 유례없는 화가’라고 평가한다.



고려인 첫 정착촌 바슈토베의 김 에두아르트 촌장

한글학교와 기념관 건립 추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북동쪽으로 300km를 달려가면 바슈토베라는 마을이 나온다. 고려인이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 처음 정착한 지역인 우수토베 시에 있는 마을로, 초창기 토굴 흔적을 비롯해 고려인 공동묘지가 남아 있는 곳이다.

바슈토베는 고려인이 초기 정착했던 크질오르다, 카라간다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도 고려인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김 에두아르트 아파니스예비치(41·남) 씨는 바슈토베의 촌장을 맡고 있다.

고려인 3세인 그는 대학 졸업 후 1997년 고향에서 중학교 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009년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마을 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 4년의 촌장 자리를 처음에는 정부에서 임명받았고 2013년 선거를 거쳐 재임하고 있다. 고려인 외에도 카자흐, 러시아, 체첸, 쿠르드,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독일 등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마을의 촌장으로 뽑힌 비결을 묻자 그는 “바슈토베에 정

착한 고려인은 인근 강물을 끌어다가 황무지를 개척해 논농사를 전파했고, 구소련 시절 콜호스(집단농장) 지도자로서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윤 세르게이를 배출하는 등 지역에서 존경받아왔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촌장은 고려인이 맡는 것을 당연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촌장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인구의 30%가 고려인이어서 타민족이 고려말(한국어)을 배우지 않으면 사는 데 불편할 정도였다”며 “지금도 6천500명 인구 중에 1천 명이 고려인으로 카자흐 민족 다음으로 많이 살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촌장 재임 기간에 ‘한글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는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말을 배울 수 있지만 성인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다. 또 바슈토베에 정착한 첫해 토굴을 파서 지냈던 기록 등 다양한 한인 이주사를 복원해 후손들에게 전해줄 기념관 건립도 시급하다며 모국의 도움을 호소했다. **창**



아부다비서 'UAE 진출 한국 청년의 밤' 행사 현지 생활정보와 소중한 경험 나눠

강훈상 | 연합뉴스 아부다비 특파원



1



2



3

아랍에미리트(UAE)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마련됐다. 주UAE 한국대사관(대사 권해룡)은 11월 5일 아부다비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UAE 진출 한국 청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엔 UAE 현지 기업에 취직했거나 UAE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학 온 20~30대 한국 청년 70여 명이 모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했다. UAE가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가장 경제 교류가 활발한 만큼 취업자 수도 가장 많다. 주UAE 한국대사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UAE에 취업한 30대 이하 한국인 수는 항공, 보건·의료, 호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1천20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특히 2010년 한국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UAE 국영 원자력공사(ENEC)와 국영석유회사 ADNOC 등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일자리에 한국인의 진출이 시작됐다.

민진아(25) 씨 역시 대학 졸업을 앞둔 지난해 8월 까지만 해도 다른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다. 취업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지도 교수가 우연히 UAE 유학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UAE 최대 국영 석유회사 ADNOC이 운영하는 석유대학(Petroleum Institute·PI)의 한국 장학생 2명 가운데 1명으로 뽑힌 것이다. 이 장학생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 한국과 UAE 정부의 협약으로 새로 생겨난 기회였다.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4학년 2학기에 다니던 민 씨는 PI의 서류 전형에 거쳐 지난해 8월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조건은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치면 ADNOC에 취업이 확정되는 것이다. ADNOC에서의 초임도 역대 연봉인 10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I엔 민 씨와 같은 한국 학생 8명이 다닌다. 민 씨는 "한국에서 취업이 매우 어려운데 해외로 눈을 돌려 넓게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가 UAE 취업과 거주에 필요한 현지 노동법, 세법, 임대차 계약법, 생활 법률을 소개했다. 주UAE 한국대사관은 청년 인력의 현지 취업을 위해 올해 5월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청년 인력 진출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권해룡 주UAE 한국대사는 "UAE를 비롯해 중동에 취업 기회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면 한다"며 "대사관도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멘토'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1. UAE 아부다비서 열린 'UAE 진출 한국 청년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참가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 주UAE 권해룡 대사가 'UAE 진출 한국 청년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3.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회사 ADNOC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유학하는 민진아(25) 씨

재외동포와 금융 거래

실명확인 후 자유거래, 단 핫머니는 규제



KB국민은행이 2011년 10월 베트남 하노이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외국환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 예금 거래 또는 신탁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화예금은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자금은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원화예금은 예치 및 처분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비거주자 원화계정이다. 이는 국내에서 취득한 모든 원화를 예치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령한 외화를 환전한 원화 포함 예치된 자금은 원화로만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둘째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다. 이는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를 환전한 원화와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등을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자금은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국내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예금이다.

한편 신탁은 외국환은행과 외화신탁, 원화신탁 모두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재외동포의 금융 거래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특례 적용을 받는다.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 시 비거주자로 분류돼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신탁예금 등의 가입이 금지돼 있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했다.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Hot Money)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재외국민 등 해외 체류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를 이용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에는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기존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993년 8월 12일 이전 금융자산의 경우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된다. 1993년 10월 12일까지의 실명 전환 기간 내에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비실명 계좌를 인출할 때는 1993년 8월 12일 현재 금융자산평가액 징수율 50%를 적용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다.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주민세 포함 99%) 세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다.

실명 계좌의 경우에는 위의 실명 전환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실명 확인을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는다.

금융 거래는 비밀이 보장된다.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장**

Q&A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됐다. 금융 거래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 국적 동포와 같이 국내 거소 신고를 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소외감을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으로 재외국민은 금융 거래와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1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2012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 등 5가지 항목의 합의사항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이들 정상은 우선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 간 신규 협의체 설립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3국 협력 프로세스 정상화는 매우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고, 리 총리는 “3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경제 엔진이자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말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위). 3국 정상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래).

반자 협정(RCEP) 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정상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이행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3국 환경장관 회의(TEMM)를 통한 대기 오염 및 황사 분야에서 환경 협력 확대 ▲고위급 북극대화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세 정상은 ▲캠퍼스 아시아 및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 청소년 교류 협력 강화 ▲3국 교육장관회의 신설 ▲3국 관광 교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장**

재단 초청으로 인천재능대서 고려인 후손 직업교육



인천재능대에서 미용기술을 배운 카자흐스탄 고려인 10명은 귀국해 한국의 선진 미용 기술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인천재능대에서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을 받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미용사들은 귀국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이구동성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면서 “K팝이나 한국 TV드라마처럼 주목받도록 널리 전파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교육에 참가한 10명의 학생은 매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은 뒤 오후 5시까지 최신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스킨케어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뷰티케어학과의 이주미 학과장은 “복습 하겠다며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주말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열정이 넘쳐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마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나탈리아(37) 씨는 “고려인은 다른 민족보다 피부도 좋고 손재주도 뛰어나 미용 분야 종사자가 많다”며 “한국은 미용 기술이 앞선 데다

미용 관련 제품이 우수해 기회가 되면 현지에 도입해 활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네일아트 전문가로 활약해온 조 리디아(37) 씨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며 “한국의 미용 기술은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재료 활용이 돋보여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 CIS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 분야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재외동포, 청년희망펀드에 2천200만 원 기탁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 등에 참석한 동포로부터 모금한 2천200만 원을 청년희망재단에 기탁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청년희망재단에서 기탁식을 열어 2천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탁금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열린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4차 세계한상대회’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장과 한인 기업인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특히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참가 등록비의

10%를 청년희망펀드에 적립하고, 청년 채용 오디션 프로그램을 여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세계 176개국에서 720만 명의 재외동포가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전국 돌며 동포 사진전 수상작 전시



재외동포사진전은 11월 23일부터 7월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원주, 대전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전국 곳곳을 돌며 재외동포 사진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예선보인 사진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연 ‘제3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수상작 100여 점이다.

전시는 11월 23일부터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원주, 대전에서 이어진다.

재외동포재단은 한인 사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에서 사진 공모전을 열었으며,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26개국 105명의 동포가 직접 찍은 아날로그·디지털 사진 600여 점이 출품됐다. **창**

미국 생활의 즐거움과 애환 21가지

임혜경 미국 |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미국 플로리다에 유학생 신분으로 첫발을 디딘 이래로 20여 년이 흘렀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콧속으로 밀려들어와 턱하고 숨이 막혀 버렸던 기억도 이제는 가물기물하다. 이민자로서 미국생활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래서 맘에 든다, 미국

하나, 시선이 자유롭다. 남이 뭘 입고 뭘 하고 다니든 이상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

둘,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이들을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종종 만나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셋, '생큐(고맙습니다)'와 '아이 엠 소리(죄송합니다)'를 아끼지 않는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다.

넷, 보고 배울 것도 많고 인종이 다양해서 경험할 게 참 많은 나라다.

다섯,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접해 볼 수 있다.

여섯, 쇼핑 후 구매한 물건의 교환·반품이 자유롭다. 제품에 하자는 없고 단지 맘이 바뀌었다고 해도 싫은 내색 없이 바꾸어준다.

일곱, 마켓에서 실수로 음료수 병을 깨뜨렸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혀도 고가품이 아닌 이상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먼저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물어봐 준다.

여덟,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배격하거나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힐끔힐끔 바라보지 않는다.

아홉,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나 여행 등 여가 활동이 활발하다.

열, 미국의 교육제도는 어려서부터 지식 습득 못지않게 창의력 개발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 전인격적인 성장을 중시한다.

열하나, 사는 곳이 어디인가와 어떤 학교를 보내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특별히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열둘, 아이들의 보호와 안전이 확실하다.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는 철저히 법으로 응징당한다.

열셋, 어느 곳이나 책을 펼쳐 들고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학생이나 학자만의 습관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열넷, 거리가 깨끗하다. 공원이나 놀이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열다섯, 교통표지판과 도로 구획이 잘돼 있어 지도만 가지고 낯선 곳을 찾아다닐 수 있다.

열여섯,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를 잘해주고, 특히 보행자를 우선시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정차해준다.

열일곱, 중고물품 사용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중고물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열여덟,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보장이나 혜택이 다양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열아홉, 개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익숙해 사생활 보장이나 개인 시간을 즐기기가 편하다.

스물, 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울타리를 두른 예쁜 집들이 마음의 담을 쌓지 않도록 도와준다.

스물하나, 비록 내 것은 아닐지라도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마음이 저절로 여유로워지고 넓어져 넉넉해짐을 새삼 느낀다.

이건 아니잖아, 미국

하나, 처음엔 적응 안 되는 생돈(?)이 나간다. 물건 살 때마다 붙는 세금(tax), 팁(tip), 연체료(late fee) 등등 매사에 돈이 든다.



둘, 차 없으면 생활이 너무 불편해진다. 신발 없어도 걸을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가는 것과 같다.

셋, 의료보험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유학생 시절 비싼 보험료 부담에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에 못하고 몸으로 때운 적이 많다. 그런데다가 보험이 없으면 자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넷, 병원은 예약이 필수인데 예약자가 워낙 많아서 기다리다 병이 나아버리기도 한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싫어해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다. 더욱이 기껏 병원에 갔는데 처방도 못 받고 올 때는 정말 본전 생각난다.

다섯, 자동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더군다나 수리는 안 하고 늘 새 부품으로 교환하려고만 한다. 미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1위가 '자동차 수리공'과 '자동차 딜러(특히 중고차 판매원)'란 속설이 있을 정도다.

여섯, 미용실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렇다고 스타일이 맘에 들게 나오지도 않는다.

일곱, 이사하기 힘들고 이사비도 비싸다. 직접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운전해서 가야 한다. 포장이사 가기는 하지만 이사집이 고가 제품이 아닌 바에는 차라리 버리고 가는 편이 나올 정도로 비싸다.

여덟, 햇볕이 너무 강하다. 준비 없이 외출하면 안 된다. 봄별엔 기미, 주근깨, 잡티가 생긴다. 여름엔 햇빛에 화상 입을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홉, 아이들 학교 쉬는 날이 너무 많다. 아이들은 좋아도 엄마는 괴롭다.

열, 아이들 학교에서 모금 활동(fund raising)을 너무 많이 벌인다. 미국 공립학교 지원비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열하나, 학원 봉고차가 없다. 엄마 아빠가 운전사다.

열둘, 아이들의 한글 교육 정말 심각하다. 학교만 들어가면 사용하는 말이 죄다 영어가 돼버리니, 아이들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는 장애인 권의 신장을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다. 1990년 미국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고자 뉴욕시와 뉴욕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자랄수록 한국말을 안 쓰려 한다.

열셋, 자식에게 “You...” 라는 소리 들을 때의 미묘한 감정이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못 넘어간다. “야, 한국말로 해!”

열넷,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급하게 외출할 때도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하다.

열다섯, 아이들만 놀이터에 내보내 놀게 할 수 없다. 만 9세 미만의 어린이는 꼭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열여섯, 웹 스캠 전화가 그리도 많이 오는지 이젠 낮도 밤도 없고, 주말도 휴일도 없이 걸려 온다.

열일곱, 배달되는 음식은 피자뿐이다.

열여덟, 배달 애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큰 침대를 사도 알아서 가져가야 하고, 냉장고를 사도 그렇고, 가구를 사도 직접 싣고 가야 한다. 그래도 배달을 원하면 최소 50달러 이상의 큰돈을 지불해야 한다.

열아홉, 음식 해 먹을 때 냄새가 늘 신경 쓰인다. 특히 생선 요리, 김치·된장찌개는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면 냄새 빼느라 애먹는다.

스물, 미국인 웨이터가 추천해 주는 음식은 늘 맛이 없다. 그들과 우리 입맛이 달라서다.

스물하나, 작은 일에 크게 감동하는 현지인을 보면 닭살 돋는다. 같이 공감해 주어야겠는데 도무지 표정이 잡힐 줄 않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의 당혹감이란... [장]



바다

전승호 노르웨이 | 2015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이젠 내 나라에게 시를 써 보내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까지 써 보지도 못한 마음속 노랫말도 잊혀진 멜로디처럼 애써 기억하지 않기로 한다. 누구였는지 중요하지 않은 열여섯 즈음의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도 힘들게 되뇌이지 않고, 너의 마지막 모습도 떠올리지 않는다. 의미가 없으니 억지로 살지 않는다. 미안해도 억지로 죽지 않을 내게 내가 내려주는 마지막 면죄부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바다 위에 시를 쓴다.

바다 위에 시를 쓰면 너의 소멸과 나의 자괴가 어느 물결에서 어우러져 또 다른 노래가 되어서 바닷가에서 물결하는 젊은 처자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꿈 혹은 바람을 가지기로 한다.

바닷속에서 형클어지는 모든 언어와 눈빛들을 하나씩 건져 올린 갈매기들이 꽤액 소리치며 날아올라도, 놀라지 말자. 그가 보았던 모순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서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랑을 아니 사람을 거의 반쯤은 죽여 버릴 수도 거의 반쯤은 용서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인해 버리자. 사랑은 항상 배신이었던 것과 사람은 배신을 당해도 항상 살아낸다는 것도 기억해 내자.

바다 위에 시를 쓴다고 추모도 되지 못하고, 네 살덩어리와 뼈다귀를 내 노래가 건져내지 못할지언정,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제사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잔칫상 위에 오르던 모든 음식의 그림자일 뿐, 굴뚝 옆에서 울고 있던 어느 누구의 눈물도 훔쳐낸 적 없었으나 적어도 그의 못돼 먹은 허기는 채워주었다. 그 한 끼의 식사로 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 그 한편의 노래로 너도 아직은 살아 있다. 그러니 바다 위에 시를 쓸 일이다.

내 바다가 너의 바다와 어찌어찌 이어져 있으니 내 시가 노래가 되어서 네 육체를 어느 물결 밑에서 만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두 눈 부릅뜨고 웃지도 울지도 말고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주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애들아. **장**





바른 말 고운 말

이바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 신부는 먼저 신부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며칠 지내고 시댁으로 갑니다. 이때 신부의 친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시댁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바지'라고 합니다.

'이바지'라는 말은 '이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반다'란 말은 원래는 '잔치하다'란 의미로, 음식 따위를 만들어 보낸다는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일에 도움이 되게 한다거나 공헌을 한다고 할 때도 '이바지하다'란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다'와 같이 말합니다.

새색시가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이바지를 준비해 가는 것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바지 음식을 비싼 값에 맞춰서 가져가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오히려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이바지보다는 정성이 담긴 이바지가 더 바람직하겠지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묻는 말에 당치도 않은 대답을 할 때 동문서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또는 '자다가 잠꼬대한다'입니다. 이 속담은 대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상황이나 자리에 맞지 않게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봉창이라는 것은 창틀이나 창짝이 없이 벽을 뚫어서 구멍만 내고 안으로 종이를 발라 봉한 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창은 단순히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만든 창이기 때문에 주로 방의 아래쪽에 내는데, 옛날 우리 전통 가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봉창하다'라는 우리 고유어가 있는데, 이것은 물건을 남몰래 모아서 감추어 둔다거나, 손해 본 것을 벌충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이 '봉창하다'라는 말은 앞서의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의 '봉창'과 다른 뜻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그것을 삶아 만든 음식

- 소총이나 권총에서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장치. 굵은 쇠 모양이며 집게손가락으로 잡아당겨서 총을 쏘게 되어 있다.
- 국이나 액체 따위를 뜨는 데 쓰는 기구. 움푹 들어간 바닥에 긴 자루가 달렸다.
- 참쌀을 찌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문힌 떡
-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짠맛이 나는 흑갈색 액체. 메주를 소금물에 30~40일 정도 담가 우려낸 뒤 그 국 물을 떠내어 술에 붓고 달여서 만든다.
- 간 곳이나 방향을 모름
- 목적하는 바를 이룸

▶ 아래쪽 방향 열쇠

-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들통. 함석, 구리, 주석,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다.
-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 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어린 닭. 닭의 새끼를 이른다.
-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 미역을 넣어 끓인 국
- 북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를 차지하는 연방 공화국.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776년 독립을 선언했다. 50개의 주와 하나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워싱턴이다.

- 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파는 곳
-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
-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우리나라에는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따위가 있다.
- 인간의 본성
-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증거를 잡기 위해 그 사람 몰래 뒤를 밟음
- 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 같은 것으로 만든 침구의 하나. 솜을 넣기도 한다.
-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

▶ 오른쪽 방향 열쇠

- 콩으로 만든 식품의 하나.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짜낸 콩 물을 끓인 다음 간수를 넣어 엉기게 해 만든다.
- 이심사절기의 하나. 상강과 소설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한다. 양력 11월 8일경이다.
- 어린 소
-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
- 밀가루 · 메밀가루 · 감자 가루 따위를 반죽한 다음, 반죽을 손이나 기계 따위로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 또는

▶ 11월호 정답

주	야	장	천	휴	화	산	
방		주	계			돼	
장	병	교	도	소	연	지	
	실	패	굴	상	극		
		잔	치	여	비		
	문	병	승	약	사		
전	답	신	천	지	전	기	
망		문	우			상	
대	독	사	개	인	대		

충남 홍성 남당항의 새조개

겨울철 최고의 조개 맛



먹음직스러운 새조개 요리



서 해안을 따라 가는 여행은 항상 풍요롭고 행복하다. 아끼자기한 해안 풍경이 아름답고, 사계절 바다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안면도와 마주보고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남당리도 예외가 아니다. 남당리에 들르면 봄에는 주꾸미와 꽃게, 가을에는 대하와 전어, 겨울에는 굴과 새조개를 맛볼 수 있다. 어류의 산란기인 여름을 제외하면 언제든 제철을 맞은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 난다.

남당리에서 겨울에 맛볼 수 있는 별미는 새조개다. 천수만에서 간척사업을 벌인 뒤로 새조개가 생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당리 새조개의 역사는 20여 년에 불과하지만, 알맹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단시일에 유명세를 타게 됐다.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전부 자연산이고 가격이 비싸서 조개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 보통 조개는 깃벌에서 손으로 채취하지만, 새조개는 바다의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잡는 저인망을

써야 한다. 남당리에서는 날마다 예상 소비량을 파악해 조개를 수확하고 있어서, 언제가도 물에 올라온 지 채 하루가 안 된 싱싱한 것을 맛볼 수 있다.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새조개

어린이 주먹만 한 새조개의 껍테기를 열면 누르께한 속살에 부리 쪽만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색깔이 돈다. 새조개는 바닷속에서 부리를 닮은 부분으로 땅을 박차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가장 쫄득쫄득하다. 질기지 않을 정도로 차지고, 연한 듯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있으며, 비린내는 나지 않는다. 또한 월기 회복에 좋다는 타우린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어서 몸에도 좋다. 남당리 사람들은 “새조개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회는 못 먹는다”고 자랑한다.

새조개는 대부분 사부사부로 즐긴다. 감자, 대파, 팽이버섯, 썩 등을 넣은 육수에 새조개를 빠뜨려 적당히 익힌 뒤 초고추장이나 고추냉이를 넣은 간장에 찍어 먹는다. 속이 딱 찬 새조개는 몇 개만 넣어도 육수가 뽀얗게 변할 정도로 맛이 진하다. 육수에 넣어두면 투명했던 살이 하얗게 바뀌고, 부리 쪽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80℃의 육수에 15초 정도 담갔다 빼내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 넣어두면 부드러운 맛이 사라지고 딱딱해진다.

대개 1kg을 주문하면 새조개 20개 정도

가 나오는데, 2명에서 배불리 맛볼 수 있다. 조개를 모두 먹고 나면 국수와 라면을 끓여 먹는다. 남당리의 식당에서는 사부사부와 함께 굴, 멧게, 개불, 키조개, 가리비도 제공하므로 다양한 해산물을 한꺼번에 시식할 수 있다.

홍어나 키조개처럼 새조개를 묶은 김치, 얇게 썬 삼겹살과 함께 먹는 삼합도 있다. 삼합은 상추에 고기와 김치, 마늘과 쌈장을 듬뿍 얹고 싸 먹는 것처럼 입안에 굉장한 포만감을 선사한다. 너무 커서 우물거릴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씹다 보면 세 가지 음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낸다. 김치가 삼겹살과 새조개의 느끼함을 말끔히 없애준다.

물론 새조개도 회로 즐길 수 있다. 다만 그냥 회로 먹지는 않고 초고추장과 야채를 넣어서 무쳐 먹는다. 또한 당근, 팽이버섯, 양파 등과 함께 새조개, 주꾸미를 불판 위에 구워 먹기도 한다. 하지만 새조개의 절묘한 맛을 느끼려면 역시 사부사부가 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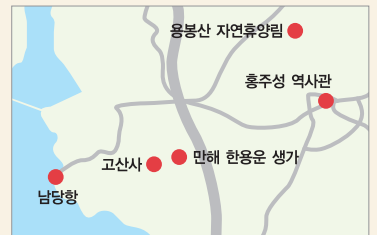
새조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고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아 영양식인 동시에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도 꼽힌다. **장**

▶ 천수만



충남 서산 해안과 안면도 사이에 형성된 좁고 긴 천수만은 새들의 천국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철새들은 대략 300여 종, 하루 최대 40여 만 마리로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기러기 등이 주를 이룬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 떼가 호수를 박차고 한꺼번에 튀어 올라 날아가면 탐조객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철새의 화려한 군무는 감동의 드라마다.

▶ 홍성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남당항 → 만해 한용운 생가 → 고산사 → 홍주성 역사관 → 용봉산 자연휴양림

• 홍성 관광 안내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362
홍성군 문화관광 포털
(<http://tour.hongseong.go.kr/tour.do>)

• 대중교통

열차 (서울 - 홍성 2시간 소요)
고속버스 (서울 - 홍성 2시간 30분 소요)

• 식당 정보

갯마을횡집 새조개 041-631-3969
신만횡집 새조개 041-634-6457

재외동포재단 “내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한인단체와 한글학교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년에 펼칠 사업과 관련,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동포 언론·문화 단체·차세대 단체·한글학교 등은 12월 18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코리아넷(www.korean.net) 사이트에 접속해 상단 메뉴 중 ‘수요조사’란을 클릭해 해당 사업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프린트해 서명한 후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각국 재외공관은 접수한 서류에 공관장의 의견을 달아 재단에 보내면 재단은 내년 2월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은 내년에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비롯해 불우·소외 계층 지원, 차세대 단체 역량 강화, 거주 지역 및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걸맞지 않은 단순 친목 활동, 영리사업, 단체 운영 경비, 채무상환 등을 포함해 미화 1천500달러 미만 예산, 전년도 지원에 대한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보정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 다른 공공 기관과의 중복 지원,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 등도 제외 대상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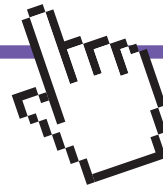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